

# 갈수록 더 나온다... '학동 붕괴 참사' 비리 복마전



2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현장 감리자가 영장 집행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철거 받고 철거 감리자 선정한 광주 동구 7급 공무원 입건 3개 분야 철거 '사실상 한 업체'... 입찰 담합 등 수사력 집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비리 복마전(伏魔殿)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비위 혐의자가 꾸준히 입건되는가 하면, 양파껍질 벗기듯 불법 행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청탁받고 감리 선정=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22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모두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16명이던 입건자가 하루 만에 3명 늘어난 것으로, 동구 7급 공무원 1명이 추가됐고 철거업체 관계자 2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철거공사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혐의(부정청탁방지법 위반)로 동구청 인-허가 담당 7급 공무원을 입건했다.

해당 공무원은 광주시가 구성한 감리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거나 순번을 정해 선정해야 하는 절차 대신,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해당 감리자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인물에 대해서도 대가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주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감독 부실 및 철거공사 재하도급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혐의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청탁 혐의 주목=경찰은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일부 청탁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석면철거 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상태로, 이같은 불법 행위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조합측과 체결된 105억원 규모의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재개발조합 관계자 4명과 철거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9명 등 13명을 입건했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재개발 참여 업체들, 사실상 한 업체?=경찰 수사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참여업체들이 사실상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구역 내 철거사업을 ▲일반건축물 철거 ▲사업구역 내 석면철거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 간 관련성도 주목하고 있다.

당장,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 사장은 해당 사업 구역에서 석면철거공사를 맡은 지형이앤씨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사업구역의 지장물(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한솔기업·대건건설·거산건설) 중 대건건설 대표는 다원이앤씨의 임원이기도 하다. 다원이앤씨는 지형이앤씨와 공동으로 석면철거공사를 맡고 있다.

결국, 한솔기업의 경우 일반건축물 철거, 석면철거, 지장물철거 모든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입찰 방해·담합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측의 입주·분양권을 토대로 특혜 제공 여부를 따져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은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감리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신청된 붕괴 현장 감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복귀 보름 만에' 김기선 지스트 총장 해임

광주과기원 이사회 결정... 학내 갈등·대립 양상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가 22일 김기선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총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됐다.

지스트 측에 따르면 지스트 이사회는 이사회 서울 사무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김 총장이 더는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 해임으로 송종인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 무대행을 맡게 된다.

앞서, 김 총장은 지스트 노조·이사회 등과 학교 운영 방식, 총장직 유지 등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스트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던 전 직인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올해 초부터 총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지스트 홍보실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도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고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 냈다.

김 총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했지만 이사회의 해임 결정으로 다시 총장직을 잃었다.

김 총장은 "총장에게 제기된 사유들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고, (이사회가) 기관장 직무 감사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해임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여름철 감염병 예방 위생수칙 지키세요"

살모넬라·캠필로박터균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주의  
손 씻기·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조리 위생 준수해야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살모넬라 감염증,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병원성 대장균 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할 때 주로 발생하며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광주시는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조사,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질병관리청,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 도마 조리 수 소독하고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오월첫동네 플리마켓'... 청년창업자 판로 지원

광주 북구, 23~25일 전남대 정문

광주시 북구는 전남대지역공헌센터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인 '오월첫동네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오월첫동네는 '5·18이 시작된 첫 동네'라는 의미로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업자원을 받은 청년창업자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업 대상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3일부터 25일 3일 동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5·18 제1호 사적지인 전남대 정문에서 진행된다.

플리마켓에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소재한 창업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전남대 학생, 외부 판매

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기술·서비스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전남대 동아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팀의 무대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도 행사에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행사장 내에 방역부스를 설치하고 체온측정기,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후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 (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청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연합영업팀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19번길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